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김성경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The Effect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in the COVID-19 Pandemic

Seong Kyong Kim
Hanseo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요 약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전향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1일까지 충남에 소재한 H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148명이었다. 전향적으로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사 이미지($r=.55, p<.001$), 전공만족도($r=.6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beta=.332, p<.001$), 전공만족도($\beta=.409, p<.001$)로 설명력은 40.6%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체계적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undertaken to evaluate the effect of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on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student nurses who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study participants were 148 nursing students at H University in South Chungcheong Province between April 10, 2023 and April 21, 2023. Prospectivel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SPSS Ver. 20.0. Participa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found to be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elf-image ($r=.55, p<.001$) and job satisfaction ($r=.61, p<.00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was significantly affected by self-image ($\beta=.332, p<.001$) and job satisfaction ($\beta=.409, p<.001$), which had an explanatory power of 40.6%. To improve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f nursing students, career guidance and systematic educational programs are required to improve nurse self-image and job satisfaction.

Keywords : Nursing Student,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COVID-19

본 논문은 2023년도 한서대학교 교내연구과제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eong Kyong Kim(Hanseo University)

email: ksk0124@hanseo.ac.kr

Received August 28,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September 18,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발표한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2위가 간호사이고, 특히 여자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1위는 3년 연속 간호사이다[1]. 여자 고등학생 뿐만 아니라 남자 고등학생의 희망직업 중에서 간호사가 2020년 18위에서 2021년 15위로 올라섰다[2]. 취업과 미래가 보장되고, 전문직이라는 장점으로 인해 간호학과의 입시경쟁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3], 간호대학생은 다른 전공의 일반대학생과는 달리 대학에 진학함과 동시에 이미 진로의 방향이 결정된 상태이며, 대학생활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다[4]. 그러기에 미래의 간호사를 양성하는 간호학과는 간호대학생이 대학을 졸업한 후 간호사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호학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사회 속에서 간호사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지만, 간호사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는 의사 보조역할 정도로 인식되고 있었다[5]. 2019년 11월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COVID-19)이 전 세계를 팬데믹 상황에 있게함에 따라[6] 의료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점차 증가되었고 특히 간호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관심이 증가하였다[7]. 언론을 통해 나타난 간호사의 모습이 희생과 헌신, 전사, 영웅 등으로 비춰지면서 간호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7].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일수록 전공몰입이 높았고[8]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정체감도 높았다[9]. 또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와 학업 성취도가 높았던 것을 볼 때[10],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간호대학생이 졸업 후 간호사로써 역할을 수행하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COVID-19 상황에서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을 통해 간호사 이미지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으며, 전공만족도가 어떤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간호대학생들에게 임상실습 만족이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를 향상시키기도 하지만[11], 임상실습 동안 학교에서 학습한 부분과 의료현장에서 적용의 차이, 일부 간호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비교육적 태도 등의 경험으로 간호대학생들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하기도 한다[12].

청소년에 대한 법적 사항을 담고 있는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로 명시되어 있다[13].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과업은 진로를 결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개인이 진로결정과 관련된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느끼는 자신감의 정도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라고 한다[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행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준다[15]. 암기해야 할 의학용어들과 많은 전공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을 끝까지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전공만족도는 직접효과를 주었고[4], 간호사 이미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16]. 또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3].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연구[17-19]들은 많이 있었으나 이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연계로 연장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고 COVID-19 이전 자료만 몇몇 있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상담과 일반 진로교육 분야[20,21]가 대다수였고 간호대학생에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적용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었다.

COVID-19 등의 전염병 혹은 감염병이 세계적으로 유행하며 간호사의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짐[22] 이때,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행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간호사를 꿈꾸는 간호대학생들에게서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이 인식하는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전향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충남에 소재한 H대학교에 재학 중이며,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학과 3,4학년 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하여 자필로 서명한 자로 하였다.

대상자 수는 G*power 3.1 프로그램[2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선행연구[24]를 기반으로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예측변수 4개로 산정한 결과, 본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 수는 129명으로 탈락률 20%를 고려하면 총 155명이 필요하였다. 155명의 설문자료가 수집되었고, 이중 불충분하게 작성된 설문지 7부를 제외하고 총 148부를 최종적으로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학년, 종교, 지난학기 성적, 간호학과 진학동기,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 가족 중 간호사 여부,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포함하였다.

2.3.2 간호사 이미지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는 Lee 등[25]이 개발하고 Jang[26]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자질 9문항, 역할 7문항, 사회참여 7문항, 대인관계 6문항으로 4개 영역,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24,26번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처리하였다.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Jang[26]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5였다.

2.3.3 전공만족도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Kim & Ha[27]가 작성한 학과 만족 도구 34개 문항 중 Lee[28]가 전공 만족 관련 문항으로 선택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는 일반 만족 요인 6문항, 인식만족 요인 6문항, 교과만족 요인 3문항, 교수-학생 간의 관계만족 요인 3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e[2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2.3.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etz, Klein과 Taylor[29]가 개발한 CDMSES-SF(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Short Form)를 Lea[30]가 번안한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는 직업정보, 목표선택, 미래계획, 문제해결 등 4개의 하위요인으로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하는 Likert scale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ea[3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5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4였다.

2.4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2023년 4월 10일부터 2023년 4월 21일 까지 시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자료수집 전에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및 내용,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서면동의를 한 이후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를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음을 설명하였다.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 작성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고,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Statistics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평균, 표준편차, 최대값, 최소값으로 분석하였다.
-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t-test, ANOVA로 분석하고 Scheffe's test로 사후 검정을 시행하였다.
- 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2.6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수집 전에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충남에 소재한 H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의 승인(IRB No:HS23-03-02)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연구의 목적, 연구 절차 및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였고 대상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직접 서면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였다. 서면동의를 한 이후라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중단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불이익은 절대 없음을 설명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일련번호로 표기했으며 생년월일, 이름, 학번 등 대상자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는 수집하지 않았고 연구자 외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잠금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2.8±5.1세였으며, 20~24세가 130명(87.8%)으로 가장 많았고 25~29세 13명(8.8%), 30세 이상 5명(3.4%)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은 남자가 41명(27.7%), 여자가 107명(72.3%) 이었으며 3학년이 69명(46.6%), 4학년이 79명(53.4%)을 차지했다. 종교는 '무'가 98명(66.2%) 이었고 지난해기 성적은 3.0~3.4점이 60명(40.5%)로 가장 많았다. 간호학과 진

학 동기는 '취업에 유리'가 62명(41.9%)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성과 흥미' 57명(38.5%), '가족의 권유' 17명(11.5%), '성적에 맞아서' 8명(5.4%)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친지 중 간호사의 유무를 묻는 질문은 '있다' 62명(41.9%), '없다' 86명(58.1%)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는 '보통' 63명(42.5%), '만족' 61명(41.2%)으로 나타났으며 임상실습 만족도는 '만족' 54명(36.5%), '보통' 52명(35.1%)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입원 또는 병원 방문시 간호사 모습'이 60명(40.5%)로 가장 높았고 '임상실습' 54명(36.5%), '대중매체' 32명(21.6%)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3.2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3.9±0.5점(5점 만점)이었고, 전공만족도는 3.9±0.6점(5점 만점)이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3.8±0.5점(5점 만점)이었다(Table 2).

3.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정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 이미지는 학년(t=4.94, p=.028),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F=5.23, p=.001), 임상실습 만족도(F=11.91,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학년에서는 3학년이 4학년보다,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에서는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보통'이라고 답한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F=30.50, p<.001), 임상실습 만족도(F=13.30,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전공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전공만족도 점수가 높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F=11.08, p<.001), 임상실습 만족도(F=5.59, p<.0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y	n (%)	M±SD
Age (yr)	20~24	130 (87.8)	22.8±5.1
	25~29	13 (8.8)	
	30≤	5 (3.4)	
Gender	Male	41 (27.7)	
	Female	107 (72.3)	
Grade	3rd	69 (46.6)	
	4th	79 (53.4)	
Religion	Yes	50 (33.8)	
	No	98 (66.2)	
Past grades	4.0≤	28 (18.9)	
	3.5~3.99	44 (29.8)	
	3.0~3.49	60 (40.5)	
	≤2.99	16 (10.8)	
Reason for major selection	Employability	62 (41.9)	
	Aptitude and hobbies	57 (38.5)	
	Fitting to grade	8 (5.4)	
	Family recommendation	17 (11.5)	
	Etc.	4 (2.7)	
Nurse in the family	Yes	62 (41.9)	
	No	86 (58.1)	
Overall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18 (12.2)	
	Satisfied	61 (41.2)	
	Usually	63 (42.5)	
	Dissatisfied	4 (2.7)	
	Very dissatisfied	2 (1.4)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18 (12.2)	
	Satisfied	54 (36.5)	
	Usually	52 (35.1)	
	Dissatisfied	21 (14.2)	
	Very dissatisfied	3 (2.0)	
Nurse image formation path	Mass media	32 (21.6)	
	Hospitalization or Hospital visit	60 (40.5)	
	Clinical practice	54 (36.5)	
	Etc.	2 (1.4)	

Table 2. Degree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48)

	Number of questions	Range	Min	Max	M±SD
Nurse image	29	1~5	2.6	5.0	3.9±0.5
Major satisfaction	18	1~5	2.4	5.0	3.9±0.6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25	1~5	2.1	5.0	3.8±0.5

적인 간호학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임상실습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라고 답한 군이 '불만족'이라고 답한 군보다 유의하게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다(Table 3).

3.4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사 이미지($r=.55, p<.001$), 전공만족도($r=.61,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간호사 이미지는 전공만족도($r=.66, p<.001$)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

Table 3.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General Characteristics (N=148)

Characteristics	Category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M±SD	t or F (p)	Scheffe
Age (yr)	20~24	3.9±0.5	2.55 (.082)		3.9±0.6	0.74 (.478)		3.9±0.5	0.96 (.386)	
	25~29	3.9±0.6			3.9±0.7			3.7±0.7		
	30≤	3.4±0.6			3.6±0.5			3.6±0.4		
Gender	Male	4.0±0.6	0.24 (.624)		4.0±0.6	0.82 (.368)		3.9±0.6	0.18 (.670)	
	Female	3.9±0.5			3.9±0.6			3.8±0.5		
Grade	3rd	4.0±0.5	4.94 (.028)		3.9±0.6	1.15 (.285)		3.9±0.5	0.45 (.506)	
	4th	3.8±0.5			3.8±0.6			3.8±0.6		
Religion	Yes	4.0±0.6	0.26 (.609)		3.9±0.6	0.11 (.739)		3.9±0.5	2.12 (.148)	
	No	3.9±0.5			3.9±0.6			3.8±0.6		
Past grades	4.0≤	3.8±0.4	1.14 (.336)		3.9±0.6	2.26 (.084)		3.8±0.6	1.83 (.145)	
	3.5~3.99	4.0±0.5			4.1±0.6			4.0±0.5		
	3.0~3.49	3.9±0.6			3.8±0.5			3.8±0.5		
	≤2.99	3.8±0.6			3.8±0.7			3.7±0.8		
Reason for major selection	Employability	3.9±0.6	0.72 (.577)		3.8±0.6	1.43 (.229)		3.8±0.6	0.12 (1.000)	
	Aptitude and hobbies	4.0±0.4			4.0±0.6			3.8±0.5		
	Fitting to grade	3.9±0.6			3.8±0.5			3.8±0.5		
	Family recommendation	3.9±0.5			3.9±0.5			3.8±0.6		
	Etc.	3.7±0.3			3.7±0.3			3.8±0.3		
Nurse in the family	Yes	3.9±0.5	0.18 (.773)		3.8±0.6	1.64 (.203)		3.8±0.6	0.62 (.432)	
	No	3.9±0.6			3.9±0.6			3.9±0.5		
Overall satisfaction with nursing major	Very satisfied ^a	4.1±0.6	5.23 (.001)	b>c	4.6±0.4	30.50 (<.001)	a>c,d,e b>d,e	4.3±0.4	11.08 (<.001)	a,e>d
	Satisfied ^b	4.1±0.4			4.1±0.4			4.0±0.5		
	Usually ^c	3.7±0.5			3.5±0.5			3.6±0.5		
	Dissatisfied ^d	3.6±0.7			3.2±0.4			3.2±0.7		
	Very dissatisfied ^e	3.6±0.8			2.8±0.6			4.5±0.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Very satisfied ^a	4.3±0.6	11.91 (<.001)	a>d,e b>e	4.5±0.5	13.30 (<.001)	a>c,d,e	4.3±0.5	5.59 (<.001)	a>d
	Satisfied ^b	4.1±0.5			4.0±0.5			3.8±0.5		
	Usually ^c	3.8±0.4			3.8±0.5			3.8±0.4		
	Dissatisfied ^d	3.5±0.5			3.5±0.5			3.6±0.7		
	Very dissatisfied ^e	3.2±0.1			3.4±0.9			4.1±0.5		
Nurse image formation path	Mass media	3.9±0.5	0.09 (.967)		3.9±0.6	0.15 (.932)		3.9±0.5	0.38 (.771)	
	Hospitalization or Hospital visit	3.9±0.6			3.9±0.6			3.8±0.6		
	Clinical practice	3.9±0.5			3.9±0.5			3.8±0.5		
	Etc.	3.7±0.1			3.9±0.1			3.7±0.2		

Table 4. Correlation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48)

	Nurse image	Major satisfac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r (p)	r (p)	r (p)
Nurse image	1		
Major satisfaction	.66 (<.001)	1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55 (<.001)	.61 (<.001)	1

Table 5. Affecting Factors 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N=148)

	B	SE	β	t	p	Adjusted R ²	F (p)
(Constant)	.957	.452		2.118	.036		
Nursing major satisfaction	-.056	.069	-.081	-809	.420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085	.050	.147	1.707	.090	.406	26.14 (<.001)
Nurse image	.334	.093	.332	3.593	.000		
Major satisfaction	.382	.103	.409	3.703	.000		

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인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와 일반적 특성 중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전반적인 간호학 전공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들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한 결과, 공차한계는 0.332~0.543, 분산팽창인자(Variation Inflation Factor, VIF)는 1.840~3.016로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었다.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ston 통계량을 확인한 결과 1.739로 독립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beta=.332, p<.001$), 전공만족도($\beta=.409, p<.001$)로 나타났다(Table 5). 이들 변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6%였다($F=26.14, p<.001$).

4. 논의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

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선행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간호사 이미지는 5점 만점에 평균 3.9±0.5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사 이미지를 확인한 Han[31]의 4.2±0.4점보다는 낮았지만, Hong[32]의 3.7±0.4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임상실습을 한학기 경험한 3학년이 임상실습을 더 많이 경험한 4학년보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었던 선행 연구[11]와 상반된 결과였지만, 학년이 낮을수록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높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간호사 이미지 점수가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던 Hong[32]의 연구 결과와는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호사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40.5%가 입원 또는 병원 방문 시 간호사의 모습이라고 답했고, 36.5%가 임상실습이라고 답했다. 임상실습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간호사 이미지와 임상 현장에서의 간호사 이미지 사이에 차이를 느끼는 경험이 될 수 있다[32]. COVID-19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긍정적으로 형성되었던 간호사 이미지가 학년이 올라갈수록 반복하여 경험되는 임상실습을 통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사 이미지 점수는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 결과 '만족'이 '보통'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 '만족'이 '불만족' '매우 불만족'보다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를 높이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높여 간호사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지각하는 간호사 이미지를 심층 분석하여 긍정적인 요인은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요인은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9 ± 0.6 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전공만족도를 확인한 Jung 등[14]의 3.6 ± 0.5 점과 Hwang[3]의 3.7 ± 0.6 보다는 높았지만 Leel[24]의 4.1 ± 0.6 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나이, 성별, 학년, 지난학기 성적, 진학 동기 등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 '만족'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이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보다 전공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COVID-19 이전에 시행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던 Jung 등[1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자신의 기대와 진로에 대한 확신을 경험하며 전공만족도가 높아지고[14] 전공만족도가 높을 경우 진로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갖는다[4]. 때문에 더욱 다양하고 체계적인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이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인 대학 뿐만 아니라 임상실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 및 간호계 전체의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5점 만점에 평균 3.8 ± 0.5 점이었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확인한 Jung 등[14]의 3.3 ± 0.6 점, Kim 등[33]의 3.5 ± 0.6 점보다는 높았고, Lee 등[4]의 3.8 ± 0.5 점과는 같았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이 '불만족'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높았고, 임상실습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이 '불만족'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14]와 유사하다. 그러나,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 결과 '매우 만족'이라 답한 대상자는 18명(12.2%) 이지만, '매우 불만족'이라 답한 대상자는 2명(1.4%)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적기 때문에 이를 '불만족'보다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이 높다고 일반화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Jung 등[14]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았고, Lee 등[4]에서도 남자인 경우,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대인관계가 좋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추후 반복적인 연구를 통해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의미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간호사 이미지가 좋으면 전공만족도가 높을 것이고, 간호사 이미지 좋고 전공만족도가 높으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도 높아질 것이다. 이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간호사 이미지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16],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며[14]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전공만족도가 직접효과를 준다[4]는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전공만족도와 간호사 이미지간에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 선행연구[32]의 결과와도 맥락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였으며 이들 변수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설명력은 40.6%였다. 본 연구에서, 전반적인 간호학 만족도와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을수록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를 높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와 같은 감염병이 확산되면서 환자를 돌보는 간호사들은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채 현장에서 일하고, 임상실습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들도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임상실습에 임하였다[34]. 이러한 사회적인 현상으로 인해 COVID-19 이전에는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대학생의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향상되었지만[11], COVID-19를 경험하면서 임상실습을 반복할수록 간호사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생각된다. COVID-19 팬데믹에서 이제는 엔데믹 상황에 접어들었다. 이러한 시기에 미래의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 중인 간호대학생이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결정하고 어려움을 견디어내며 행동을 지속하는데 영향을 주는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을 높인다면, 졸업 후 간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정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인 간호사 이미지를 크게 전환시킨 COVID-19를 경험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규명한 것에 의의가 있다. 이에 본 연구가 간호대학생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해 간호사 이미지도 향상시키고, 전공만족도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되어지길 기대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COVID-19 상황에서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의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요인을 확인하고자 전향적으로 시행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결과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가 대상자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간호사 이미지, 전공만족도로 설명력은 40.6%로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간호사 이미지와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해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다만, 본 연구는 충남에 소재한 H대학교에 재학 중인 간호대학생에 국한되어 이루어진 연구이기에 일반화하는 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다기관에 확대해 반복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2022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2022 [cited 2023 August 12]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2&opType=N&boardSeq=93422> (accessed August 12, 2023)
- [2] Ministry of Education. 2021 Elementary and secondary career education status survey. [Internet]. Ministry of Education; 2021 [cited 2022 December 30] Available from: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90414&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20402&opType=N> (accessed December 30, 2022)
- [3] H. M. Hwang, "The effect of nurse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fter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6, pp. 476-483, 2018. DOI: <https://doi.org/10.5762/KAIS.2018.19.6.476>
- [4] J. W. Lee, N. Y. Lee, Y. S. Eo, "Path analysis of major satisfaction, clinical compet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level in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9, No.1, pp.311-320, 2018. DOI: <http://doi.org/10.5762/KAIS.2018.19.1.311>
- [5] M. R. Kang, K. S. Jeong, "A comparison of the nurses image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17, No.4, pp.342-349, 2017. DOI: <https://doi.org/10.5392/JKCA.2017.17.04.342>
- [6] World Health Organization. [Internet]. Coronavirus disease(COVID-19) pandemic; 2023 [cited 2023 August 12] Available From: <https://www.who.int/emergencies/diseases/novel-coronavirus-2019> (accessed August 12, 2023)
- [7] M. Y. Park, S. H. Jeong, H. S. Kim, E. J. Lee, "Images of nurses appeared in media reports before and after outbreak of COVID-19: Text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52, No.3, pp.291-307, June 2022. DOI: <http://doi.org/10.4040/jkan.22002>
- [8] Y. H. Kim, N. Y. Kim, "Influencing factors the Nurse Image Recognized by nursing students on major commitment",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8, No.5, pp.1314-1324, 2021.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1.38.5.1314>
- [9] E. J. Jo, J. H. Park, K. M. Lim, "The convergent effect of nurses' image and major satisfaction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7, No.10, pp.329-337, 2019. DOI: <https://doi.org/10.14400/JDC.2019.17.10.329>
- [10] C. H. Kim, J. Y. Kim, "The effect of clinical practice belonging, satisfaction with major, and work values on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6, No.3, pp.259-268, August 2020.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20.26.3.259>
- [11] Y. S. Seo, C. Y. Jeong, "The effects of clinical practice satisfaction, nursing image and self-esteem on vocational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Clinical Health Science*. Vol.8, No.1, pp.1377-1385, 2020. DOI: <http://doi.org/10.15205/kschs.2020.06.30.1377>
- [12] J. Choi, N. S. Ha, "The relationship among image of nurses, self esteem and professional socialization in

-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15, No.1, pp.54-63, 2009.
- [13]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Internet]. Framework act on youth. [cited 2023 August 12]. Available From: <https://www.law.go.kr/법령/청소년기본법> (accessed August 12, 2023)
- [14] J. S. Jung, M. J. Jeong, I. Y. Yoo, “Relations between satisfaction in majo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0, No.1, pp.27-36, 2014.
- [15] J. H. Park, S. K. Yoo, “Exploring the mediating effects of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work hop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alling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2, pp.543-560, 2012.
- [16] E. H. Kang, M. Y. Kim, “The effects of nurse image, self-leadership,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Proceedings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Pusan, Korea, Vol.27, pp.139-143, January 2022.
- [17] M. H. Lee, Y. S. Kim, “Influence of nurse’s image and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major on their career identity: The mediating effe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3, pp.248-258, August 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3.248>
- [18] K. E. Lee, I. S. Seo, “The effects of calling, nurse’s image, satisfaction in major and self-efficacy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Vol.28, No.1, pp.37-47, February 2022. DOI: <https://doi.org/10.5977/ikasne.2022.28.1.37>
- [19] H. J. Jang, “Effects of image of nurse, clinical performance, and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Korean Applied Science and Technology*, Vol.37, No.3, pp.635-648, 2020. DOI: <https://doi.org/10.12925/jkocs.2020.37.3.635>
- [20] J. M. Le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learning exper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utcome expectation, career design competency based on social cognitive model of career self-management”,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34, No.1, pp.73-96, March 2021. DOI: <https://doi.org/10.32341/jcer.2021.3.34.1.73>
- [21] E. B. Jeong, E. S. Joo, “A study on differences between career barrier awareness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by female college students’ levels of focusing manner”, *Journal of Employment and Career*, Vol.10, No.1, pp.1-30, 2020. DOI: <https://doi.org/10.35273/jec.2020.10.1.001>
- [22] A. Joshua, “Nursing leadership and COVID-19: defining the shadows and leading ahead of the data”, *Nurse Lead*, Vol.19, No.5, pp.483-488, 2021. DOI: <https://doi.org/10.1016/j.nur.2021.06.004>
- [23] F. Faul, E. Erdfelder, A. Buchner, A. G. Lang. Statistical power analyses using G*Power 3.1: Tests for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41, No.4, pp.1149-1160, 2009. DOI: <https://doi.org/10.3758/BRM.41.4.1149>
- [24] K. E. Lee, “The effects of self-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bility of nursing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Muscle and Joint Health*, Vol.27, No.3, pp.316-324, 2020. DOI: <https://doi.org/10.5953/JMJH.2020.27.3.316>
- [25] H. R. Lee, K. O. Cho, J. E. Ko, M. R. Hong, S. Y. Kim, H. S. Shin, “The image of nurses”, *Journal of Kyunghee University*, Vol.15, pp.45-65, 1992.
- [26] S. H. Jang, *Survey on Nurses’s Image*,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Korea, pp.1-48, 1998.
- [27] K. H. Kim, H. S. Ha,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 No.1, pp.7-20, 2000.
- [28] D. J. Lee,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in major, gender identity, and gender stereotypes of male nursing student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pp.1-59, 2004.
- [29] N. E. Betz, K. L. Klein, K. M. Taylor, “Evaluation of a short form of th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4, No.1, pp.47-57, 1996.
- [30] E. K. Lea, *A study on the effect of self-efficacy upon the career development*, Ph.D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1-134, 2001.
- [31] S. H. Han, “Effecting factors nurse image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11, pp.789-798, 2019. DOI: <https://doi.org/10.35873/ajmahs.2019.9.11.071>
- [32] E. Y. Hong, “Convergence study of mediating effect of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 image and satisfaction of major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8, No.10, pp.85-93, 2017. DOI: <https://doi.org/10.15207/JKCS.2017.8.10.085>
- [33] N. S. Kim, Y. J. Ko,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18, No.1, pp.211-218, 2020. DOI: <https://doi.org/10.14400/JDC.2020.18.1.211>
- [34] D. H. S. Kang, J. H. Yang,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of nursing student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Korean Journal of Adult Nursing*, Vol.33, No.5, pp.509-521, October 2021. DOI: <https://doi.org/10.7475/kjan.2021.33.5.509>

김 성 경(Seong Kyong Kim)

[정회원]



- 2012년 8월 : 가톨릭대학교 임상
간호대학원 가정간호 (간호학석사)
- 2019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
학과 (간호학박사)
- 2002년 12월 ~ 2007년 2월 /
2008년 2월 ~ 2022년 8월 :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 2022년 9월 ~ 현재 : 한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성인간호, 만성질환